

Havit

(주)해빛정보

<http://www.havit.co.kr>

광학필터 기술력 바탕으로 고성장

광학필터 부문에서 세계유일의 독자기술을 확보

해빛정보(대표 박병선 <http://www.havit.co.kr>)는 1999년 5월에 창업하여 현재 Grating 및 IR Cut-off Filter 등 광학부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최근 코스닥 상장, 중국 현지공장 기공 등 사세를 확장하고 있으며 광학필터 부문에서 세계유일의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월드마케팅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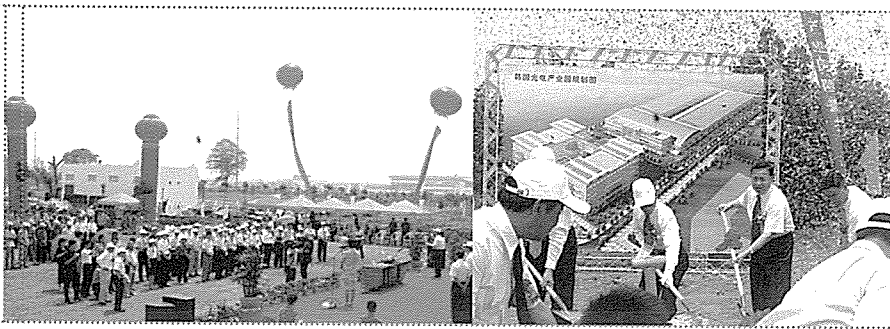
최근 코스닥 상장과 중국 현지공장 기공식을 마친 박병선 해빛정보 사장은 “기쁘지만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박 사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으로 지난 99년 5월 창업 이후 만 6년여 만에 회사를 성공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물론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도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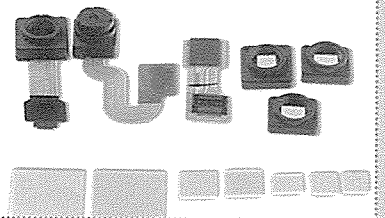
지난 2002년 공장 화재와 자금난으로 한 때 부도 위기까지 몰렸지만, 이제는 이러한 역경을 모두 이겨 내고 국내 굴지의 광학 부품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카메라 폰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차단필터(IR Cut-off Filter)는 국내 시장에서 95%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Proprietary thin film technology
- Highest defect control (no defect larger than 23um)
- Reliability control under harsh environment
- Optional optical Low-pass Filter (LPL) Technology



자체개발한 고화소 카메라폰용 광학필터(HOLF)에 큰 기대

해빛정보는 CD 또는 DVD의 정보를 읽어내는 데 사용되는 것에 필요한 광픽업(Pick-up)장치 부품과 카메라폰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차단필터(IR Cut-Off Filter)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설립 초기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광픽업장치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며 주목받았다.

해빛정보의 주력제품인 적외선 차단필터가 사용되는 카메라폰은 2000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으며, 2004년에는 휴대폰 가운데 72%가 카메라폰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33.8%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 속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자체개발한 고화소 카메라폰용 차세대 광학필터(HOLF·홀로그래프 광저대역 투과필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병선 사장은 “HOLF는 기존의 카메라폰 모듈 핵심부품인 적외선 차단필터(IR컷오프필터)보다 3~4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세계 유일의 독자기술”이라며 “250만화소 이상의 고화소 카메라폰 시장이 점차 확대될수록 HOLF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LF는 고화소 카메라폰으로 촬영할 때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을 없애주는 광학필터다. 기존 적외선 차단 필터 뒷면에 식각과정을 거쳐 정교한 홀로그래프를 새겨넣어 두께를 크게 줄인 게 특징.

해빛정보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에서 만드는 카메라폰의 핵심부품인 적외선 차단필터를 90%이상 공급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카메라폰 10개중 9개는 해빛정보 필터를 쓰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박사장은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올해 일본 카메라폰 필터시장도 본격 진출해 매출 100억원은 해외서 내겠다”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 굴지의 부품기업들과 기술력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해빛정보는 CD롬, DVD플레이어, 게임기 등을 재생하는 광픽업장치의 핵심 부품인 그레이팅(Grating)과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 등에도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광픽업용 부품은 현재 소니, 도시바 등 일본업체와 대만 등지에도 공급하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월드마케팅 전개

또한 지난 6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시 신기술개발구에서 최근 해외 생산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해빛정보가 동지를 틈 이곳을 지난 1989년부터 우한시가 중국 내 광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우한 광밸리 지역이다. 현재 700여 개의 광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 자리에는 후베이성 인민정부 노위칭치엔(羅清泉)성장과 우한시 전칭초우(陳訓秋)공산당 서기 등 성급 지도자와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해빛정보 중국 생산공장은 전체 부지 6000여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사무실동과 지상 1층 공장동으로 건설되며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CD, DVD, 게임기 등에 사용되는 광픽업 장치부품과 카메라폰에 장착되는 적외선 차단필터(IR Cut-off Filter)등을 생산하며, 내년 상반기 현지인력 3000여명을 고용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병선 대표는 “2년의 노력 끝에 중국 현지공장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국 생산공장은 중국 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폰 부품의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편집실 윤희진